

LOSTARK™

기록의 서

By 마스터로보

트리시온



적막한 어둠속에서 커다란 날개를 가진 여성이 다가온다

베아트리스 : 기다렸습니다.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베아트리스가 뒤돌자 빛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떤 장소에 도착한다

베아트리스 : 여기는 트리시온...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의 끝...

빛의 길을 따라 저에게로 오세요.

(♣ 베아트리스 따라가기) 그녀가 말한대로 길을 따라가자

베아트리스 :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던 악마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오래전 악마로부터 세상을 구했던 힘... 아크가 필요합니다. 여기 예언의 서를 열어 보세요. 당신에게 새로운 운명의 길을 열어줄 거예요.

(♣ 운명의 갈림길) 예언의 서를 열어보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베아트리스 : 당신이 선택한 길에 루페온의 축복이 있기를. 어둠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운명을 따라가세요. 아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지켜주세요. 혼돈이 다시, 세상의 빛을 잠식하기 전에...



아제나, 바훈투르, 실리안, 카단, 산디, 진저웨일이 하늘에 솟은 빛기둥을 바라본다

산디 : 빛의 기둥이 올랐으니, 서둘러야겠구나.

진저웨일 : 대체, 어디로 가는 건데?

산디 :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다. 그리고... 오백 년 만에 뜬 운명의 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꾸나.

진저웨일 : 아잇, 어디로 가는 거냐고! 아 같이가 영감! 같이가!

잊혀진 땅 트루아



(♣ 잊혀진 땅을 찾아서) 트루아로 가는 커다란 배 안

제르카 : 어이, 도착했으니 다들 일어나! 이곳이 바로, 잊혀진 땅 트루아다.

선원1 : 짐들 챙겨서 내리도록 해.

선원 2 : 사제님, 레온하트는 다음이요. 내리지 마시오.

아만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원 2 : 이분들만 내리고 바로 출발할 겁니다.

사제 모피어스 : 드디어... 도착했군요...

주인공이 내리자, 배는 다음 행선지인 레온하트로 떠난다.

짐꾼 만보 : 어이, 거기. 잠깐 이리 와 보라고. 오랜 뱃길이라 힘들었지? 배에 탄 녀석들이 하나같이 거칠어서 말이야. 그래도 이만하면 순탄한 항해였다고. 이제부터 육지에서의 모험이로군. 육지 놈들은 도통 믿을 수 없으니 조심해. 자넨... 어디 출신인가? 난생처음 보는 차림인데... 제법 괜찮아 보이는군. 자, 이걸 받게. 이번 트루아 모험대 대원들에게 지금된 지원품이야. 얼마나 위험한 걸 시키려고... 의뢰인이 지원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모양이던데. 우마르 대장장이들에게 특수 제작한 전용 무기가 들어있으니, 한번 열어보라고.

무기를 장착하자

짐꾼 만보 : 잘 어울리는군. 자네 눈빛이 참 마음에 들어. 꽤 괜찮은 실력을 갖췄을 것 같은 말이야. 최근 여기 잊혀진 땅에 하선한 이들은 다들 별 볼 일 없었다고 하더군. 대체 그게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 모험가들이 우르르 모여든 것인지... 뭐... 쓸만한 정보라도 들은 거 있나?

무슨 말인지 묻는다.

짐꾼 만보 : 큼큼, 이건 제르카에게 들은 비밀인데... (선원 만보가 목소리를 낮춘다)
의뢰인은 세이크리아에서 온 사제인데 트루아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일에 큰 보상을 걸었다고 하더군. 오래전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라... 붕괴 위험으로 폐쇄되었다가 최근에서야 개방되었는데 보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원가. 어쩌면 좀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겠... ...무, 무슨 소리지?! 아이고, 저래서 쓰겠나...

사제 모피어스 : 우에엑! 으으.. 거기, 모험가님...! 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맑은 물을 병에 담아 건내준다.

사제 모피어스 : ...으으... 고맙습니다. 무, 물! 꿀꺽, 꿀꺽, 꺽, 크하... 하... 살 것 같다.
감사합니다. 배를 오래 탔더니 멀미를 심하게 해서... 휴... 어쩐지 모험가님은 절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군요.
생명의 은인이신데 존함을 알 수 있을까요? 오호라, 주인공. 독특한 이름이네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겠는걸요. 저는 세이크리아의 사제 모피어스라고 합니다. 고대 도시 트루아에 잠들어 있는 보물을 찾아 왔어요.

보물?

사제 모피어스 : 앗, 제르카님께 아직 말씀 못 들으신 모양이군요. 보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교단에서 해독한 고고학 자료에서 이 땅에 예언자의 마지막 보물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소식은 모험가들 사이에 일파만파 퍼졌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황금이 잠든 땅이라는 무성한 소문만 커지고 사람들이 더 몰려들기 전에, 교단에서는 실력 있는 모험가들을 고용해서 이 땅을 탐사하기로 했어요. 이런 위험한 일에 제가 낙점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으으... 아, 저기 저분이 이번 모험대를 이끄는 제르카 님이에요!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자자, 이쪽으로 모여! 굼뜨긴! 어서 움직이지 못해! 나는 이 트루아 탐험의 대장을 맡은 제르카다. 다들 알고 왔겠지만, 트루아는 오래전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전쟁으로 멸망한 고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 미지의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도시의 흔적을 추적해서 사제가 의뢰한 보물을 찾는 거다. 덜떨어진 짓을 하다가 사고 치는 놈은 가차 없이 버리고 갈 테니까, 명심하라고! 지금부터 선발대가 만든 지도를 나눠주겠다. 지도는 수시로 살피도록 해! 먼저 온 선발대에서 인근 탐사를 마쳤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다고 하더군. 거참, 쓸모 없기는. 오늘부터 우리가 투입되어서 이 땅의 더 깊은 곳을 탐험할 예정이다. 미리 경고하는데, 보물이나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을 때 보고 하지 않으면... 아주 재미없을 줄... ..가만... 이 쿼퀴한 냄새는... 짐승의 냄새가 나는군.



야영지에 트롤들이 습격했다. 모험대원들과 싸우고 있다

모험대원 1 : 대장, 야영지에 트롤이...!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이런, 젠장! 얼빠진 표정 하지 말고 무기를 들어! 사냥을 시작한다! 어서 움직여! 야영지를 사수한다! 이 트롤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리자고!

(♣ 유적에 날아든 새)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쓸데없이 힘만 뺐군. 선발대 녀석들에게 그간 조사한 경로들을 자세히 들어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찾으려면 서둘러야겠어. 부상이 심하지 않은 놈들만 치료에서 함께 간다.

사제 모피어스 : 그럼요. 그럼요. 말씀 참... 무섭게 하시네. 무서우니까 칼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짐이 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곳에 따라왔으니, 제 일을 해야겠죠? 다만 한 분만 저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인공 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모험대 대장 제르카 : 거기 너, 쫓겨나는 사제를 돕도록. 나머지는 주변을 수색해!

사제 모피어스를 도와 야영지를 정리하자

사제 모피어스 : 다른 사람들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위험한 일들이 계속될 텐데...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목숨을 잃고 말겠죠. 주인공 님, 이건 교단에서 챙겨준 회복약이에요. 위험한 순간 사용하세요.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준비를 잘 해둬야죠. 후우... 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진이 빠지는데, 제르카 님은 아주 열정적이시군요. 욕심도 많으시고... 하하... 뛰어난 수색꾼이라고 들었으니 곧 옛 도시로 향하는 길을 찾아주시겠죠? 제르카 님이 받으시는 막대한 보수만큼 값어치 있는 보물을 찾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보물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해독한 자료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아주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평범한 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전설로만 들던 아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구요.

아크?

사제 모피어스 : 뭐, 전설로만 남아있는 이야기지만요. 교단에서 아크는 꽤 흥미롭게 다뤄지고 있어서... (모피어스가 목소리를 낮춘다) 우리가 찾으려는 예언자의 보물에 아크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발견되면 좋겠는데... 아, 저쪽에서 뭔가를 찾은 모양이에요!

대원 : 모험가 님 이쪽입니다!

모험대 대장 제르카 : 모두 모여, 이 방벽을 부수고 넘어간다!



길을 막고있는 방벽을 부수고 낚선배에 올라타면

사제 모피어스 : 트루아는 신의 의지가 깃든 유적이 존재해요. 오랫동안 폐쇄되어있던 곳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우와! 이 거대 석상들은 신들을 형상화 한 것이군요. 오래전, 주신 루페온은 절대 꺼지지 않을 태초의 빛 아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크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어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마치 신처럼 말이죠. 그 위치를 알 수 있다면...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어이 거참, 하루종일 떠돌어댈 건가?

사제 모피어스 : 하하.. 이야기는 이쯤 해야겠네요. 도착한 거 같습니다. 저길 보세요!

도착한 장소에서 하선하자

사제 모피어스 : 여긴... 평범한 곳 같지 않군요...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제대로 찾은 것 같군! 허튼짓 하지 말고 날 따라와! 또 트롤들이잖아! 제길, 이대로 돌파한다! 전투 준비해!

트롤들을 제압 후 제르카를 따라 다리를 건너려하자 다리가 파괴된다

사제 모피어스 : 다리를 부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 쪽에 계신 모험가님은!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쫄알쫄알... 시끄럽군. 다 같이 죽고 싶어?

점프해서 따라가면

사제 모피어스 : 휴,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모험대 대장 제르카 : 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뿐이다. 살았으면 됐지. 월 그렇게 말이 많아. 너... 보기보다 발이 빠른 게 쓸만한 놈이군. 기억해 두겠다. 이번 일을 잘 마치면... 뭐, 보수를 나눌 때 너의 공을 고려해보지. 크흐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인상 쓰지 말라고. 죽은 사람 없나? ... 없군. 계속 탐사해볼까? 여기가 도시 입구 같은데... 막혀버렸군.

무너진 유적 입구를 살펴 보면 알아 볼 수 없는 글자가 적혀있다.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어이, 사제 뭐라고 쓰여있지?

사제 모피어스 : 선택받은 자를... 기다리리라...

모험대 대장 제르카 : 뻔한 얘기군. 시간 끌 것 없이 확, 뚫어버려야겠어! 날! 물건은 챙겨왔나? 여기있는 주인공에게 준비한 걸 넘겨. 잘 들어. 너는 저쪽 바위틈에 이걸 설치하고 최대한 빠르게 멀리 도망치는 거야. 너 정도 발이 빠른 녀석이라면 가능할 거다. 크, 조금이라도 늦는다면 저 바위와 함께 산산조각 날 테지만 말이야.

유적을 부수기 위해 폭탄을 설치, 폭발한 뒤

모험대 : 뭐야? 꿈쩍도 안하잖아? 이건 고대 마법이야...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젠장, 이렇게 멀쩡하다니...!

사제 모피어스 :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까요?

주인공이 다가가자 문에서 빛무리가 나와 주인공에게 들어가고 문이 열린다

사제 모피어스 : 저기를 보세요. 길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주인공 님이 이 무너진 유적 입구를 연 건가요?

빛무리가 나타나 문을 열어줬다

사제 모피어스 : 빛무리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모험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주인공 님이 문을 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비로운 일이군요. 바위에 희미하게 쓰여있던 글자... 저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선택받은 자를 기다린다는 의미였어요. 아무래도 주인공 님과 함께 온 건 좋은 선택이었던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도 서둘러 움직이죠.

(📍 낚은 예언의 부름) 문 너머는 절벽이었다

닐 : 대장. 아무래도 허탕 친 것 같은데요...

모험대 대장 제르카 : 뭐야? 이 사제 녀석!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 땅에 옛 도시가 있었던 게 확실해? 빈 강통 같은 유적으로 우리를 다 불러들인 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보물은커녕 번번이 막다른 길뿐이잖아. 이대로 보물을 못 찾고 탐사가 끝나면 우리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제 모피어스 : 하하. 진정하세요. 보수는 지급될테니까요.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약속을 어기면 재미없을 거야!



📺 무언가... 허공에... (허공에 있던 빛무리가 퍼지자 숨겨져 있던 고대 유적과 길이 생긴다)

사제 모피어스 : 고대 유적이에요. 제가 찾고 있던...

모험대 대장 제르카 : 돈 냄새가 나는군.

길을 따라가면

사제 모피어스 : 도착했군요. 어서 가보죠!

하지만 또 다른 석문이 닫혀있다

사제 모피어스 : 어딘가 사원을 열 수 있는 비밀 장치가 있을 텐데... 함께 찾아보시죠.

신기하게 생긴 오벨리스크를 발견했다. '주시자의 눈빛을 마주하라...' 이상한 말이 쓰여있다

쓰러져있는 석상을 일으켜 세워보자 오벨리스크에 반응이 생겼다! 사방에서 빛무리들이 석문을 연다. 안쪽엔 돌로 변한 사람들과 석판이 있다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웬지 분위기가 싸한데.. 저건...!

모험대 : 보물이다!

사제 모피어스 : 잠깐만요...!

모험대 대장 제르카 : 보물에 함부로 손대지 마! 내가 먼저 확인한다!

사제 모피어스 :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밖을 보세요!



갑자기 카오스게이트가 열리더니 악마들이 쏟아져 나온다

사제 모피어스 : 이런... 악마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 거죠?

사원을 습격한 악마들을 처치하자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된 이상, 계약은 해지다.

사제 모피어스 : 그, 그게 무슨...

모험대 대장 제르카 : 내가 고작 푼돈 벌자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어서 석판을 가져와!

사제 모피어스 : 함부로 건드리면...

석판이 부숴지자 그 안에 푸른 빛을 내던 물체는 붉은 빛을 내고 모험대원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한다

사제 모피어스 : 함정입니다! 위험해요!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살려줘!

도와주지 않는다

모험대 대장 제르카 : 살려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죽을 수는...!

사제 모피어스 : 이미 늦었어요. 탐욕엔 대가가 따르죠. 여기 폭탄이에요. 던져서 함정을 파괴하세요!

폭탄을 던지자 물체가 파괴된다. 바닥에 갑자기 이상한 차원이 생긴다

사제 모피어스 : 이게... 어디로 통하는 길이죠... 어느새 둘만 남았군요... 이 유적...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함정과 악마의 습격... 그리고 인간의 탐욕까지... 정말 이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군요...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주인공 님.

(♣ 풀려난 운명의 빛) 차원으로 뛰어들자 잊혀진 사원 아트라하시스에 도착한다

사제 모피어스 : 대체... 어디로 가야하죠?

빛무리가 안내한다. 한 석상 위에 봉인된 서가 떠다닌다

사제 모피어스 :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이건!

보이지 않던 결계가 모피어스의 옷에 닿자, 예언을 지키는 자 아스톨리크가 나타나 모피어스를 날려버린다. 수호자 아스톨리크의 시험을 견뎌내자 봉인의 서가 빛을 내고 주인공에게 환영을 보여준다



??? : 운명의 빛이 비로소 세상의 끝에 닿으면 날개의 주시자는 태초의 힘으로 그를 인도한다. 심연 속에 잠든 혼돈이 다시금 눈을 뜰 때 사자의 심장에서 마침내 모든 것이 시작되리라. 운명을 향해 가거라, 선택받은 자여.

빛무리들이 주인공에게 들어간다

사제 모피어스 : 주인공 님! 괜찮으세요? 그 거대한 괴물을 물리치다니... 역시 대단한 실력자였어요, 주인공 님. 괴물은 아주 오래된 존재로 보였습니다. 예언자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수호자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언자의 보물은, 뭐였죠? 아크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간단히 전해준다

사제 모피어스 : 사자의 심장... 그렇군요. 멀지 않은 곳에 단서가 있었어요! 세이크리아 교단이 수호하는 아르테미스 변방에는 사자의 심장으로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아마도... 주인공 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것 같군요. 주인공 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의 보물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새로 시작되는 빛의 예언을 전하기 위해...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사제 모피어스 :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주인공이 먼저 떠나자 붉은 눈의 까마귀가 날아와 모피어스의 어깨에 앉는다

사제 모피어스 : 새로운 운명... 그리고... 사자의 심장이라...

모피어스의 모습이 카마인으로 바뀐다

카마인 : 레온하트인가... 후후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군.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카마인은 차원의 문을 열어 사라진다

루나패스



(9 의문의 습격) 빛무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어딘지 모를 곳에 있는 낡은 예배당 근처였다

마을 주민 1 : 오늘 우리 마을에 유명한 사제님이 오신 다며?

마을 주민 2 : 아, 나도 들었어. 명성이 자자하던데.

마을 주민 3 :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했어.

마을 주민 4 :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한다지.

마을 주민 5 : 우리 마을엔 뭘 찾으러 온다던데?

마을 주민 6 : 사제님, 레온하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만 :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시다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마을 주민 7 : 사제님, 바루투님과 마을 사람들이 성당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아만 : 아, 바루투님은 건강하신가요? 어서 가봐야겠군요.

수상한 사도 : 지금이다! 확실히 숨통을 끊어라!

순례자로 위장한 암살자를 처치하자

아만 :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레온하트로 가시나요? 이 길을 따라가면 레온하트가 나올 거예요. 일단 마을까지 마차를 타고 같이 가시죠.

(9 아만을 둘러싼 음모) 아만의 마차를 타고 레온하트로 이동하자

아만 : 그런데 레온하트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아크를 찾고 계시다고요? 신기하네요.
다들 아크를 전설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저도 아크를 찾아 순례 중입니다. 이
마을에 아크의 비밀이 담긴 석판이 있다고 해서 가보는 중이었거든요. 잘됐네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마을에 거의 다... 헉!



매복해 있던 암살자들이 습격한다

아만 : 꼭 잡으세요! 어어... 아악!

낭떠러지에 매달려있는 아만을 구조한다

아만 : 하아... 고맙습니다. 이런,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조심하세요! 또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암살자로부터 아만을 보호하면

아만 : 휴... 더는 없는 것 같군요... 후우,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다행입니다. 대체,
레온하트에 왜 저런 수상한 자들이...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겠어요. 아크의 유물은 성당에 있습니다. 성당에 도착하시면 저를 찾아
주세요.

(📍 생명의 은인) 레온하트 성당에서 아만을 찾아보자

마을 주민 1 :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마을 주민 2 : 고칠 수 있을까?

마을 주민 3 : 다른 사제들은 다 포기했잖아.

아만 :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안나 : 아, 이제 안 아파!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주민 4 : 안나의 상처가 낫다니 정말 다행이야.

아만 : 아! 모험가님. 오셨군요! 바루투님. 저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바루투 : 아, 자네였나? 눈빛이 아주 선하군 그래...

아만 : 이 모험가님도 아크를 찾고 계신답니다.

바루투 : 호오... 그런가?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시게나.



(9 전설의 동화) 바루투 사제는 아크와 연관된 장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석판의 일부분이 사라졌다고 한다

아만 : 이게 그 석판인가요?

바루투 : 그렇다네. 아크와 관련된 전승이 남아있는 석판이지.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사라져 있다네.

아만 : 조각이 빠져 있군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루투 : 성당으로 옮겨왔을 때에는 이미 이런 상태였지. 옮기던 도중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도 찾지 못했네. 석판 조각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목격한 자는 아무도 없었네. 그때 당시 옛 예배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 모험가들이 모이는 주점에 가보는 것도 좋겠군. 아만 사제를 지켜주어서 정말 고맙네.

모험가들이 모이는 주점을 찾아 가보자



레온하트



(📍 빛이 머무는 마을) 주점 주인 네리아에게 아크를 찾아내는 첫 걸음이 될 ‘열쇠의 석판’ 조각에 대해 물어보자

네리아 주점에 도착하면

네리아 : 성당에 있는 석판의 반쪽이요? 원래부터 그 모양인게 아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마을 일에 관심이 많은 아일라라 언니라면 알지도 모르니 찾아가 보시겠어요? 아 레온하트는 처음이시죠? 네리아의 주점에서 네리아를 보셨다면 이미 마을의 절반을 둘러본 거나 다름없죠. 그렇지만 레온하트가 궁금하시면 저 네리아가 추천하는 레온하트의 매력 포인트를 찾아가 보실까요?

(📍 어서오세요, 레온하트에!) 네리아가 레온하트에 대해 소개해준다

네리아 : 레온하트는 유서 깊은 대주교들의 고향입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사자 석상은 악마에 맞서 싸운 사제들을 상징하죠. 레온하트의 사람들은 늘 신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마을 같지만 신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던 최후의 성지라고 하네요. 지금도 많은 신도들이 이 마을을 찾고 있어요.

이제 아일라라를 찾아가자

아일라라 : 성당에 있는 석판? 아아, 아크에 대해서 적혀있던? 전설을 쫓다니 순진하네. 난 모르지만 비석을 옮길 때 있었던... 그래, 모험가 협회의 루덴이라면 알지도 몰라! 루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날도 비석 주변에서 계속 얼쩡거렸거든. 오늘은... 어디에 있더라? 광장 분수대 근처였을 거야. 찾아가 보던지.

루덴을 찾아가자

루덴 : 오오! 아크를 찾는 모험가라고! 비석? 비석이라... 나도 옮길 때 자리에 있긴 했지만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군. 가만, 그날 네일도 나랑 같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눈썰미가 좋은 녀석이니 그날 일에 대해 뭔가 본 게 있을지도 몰라. 아직 불일이 남았나? 아아 네일이 어디에 있냐고? 네일이라면 스퀘어홀 앞에 있을 거야. 찾아가서 석판에 대해 물어 보라고!



네일 : 석판의 반쪽? 아크를 찾기라도 할 생각이야? 루덴 같은 놈이군. 아크는 전설일 뿐이라고. 뭐 전설이라고는 하지만... 이 스퀘어홀도 실은 신들이 아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지. 정말 멋지지 않아? 저 아름다운 빛, 둥그런 곡선하며... 어이쿠, 말이 너무 길었나? 단서가 될 만한게 있을지도 모르니 한 번 살펴보라고.

살펴본 후 네일에게 말을 걸면

네일 : 특별한 건 없었어? 하긴, 거기에 아크에 대한 단서가 있었다면 벌써 아크를 찾았겠지. 스퀘어홀은 다른 장소에서 스퀘어홀로 돌아올 때 사용하는 이동수단이야. 진짜 마법 같은 물건이지. 레온하트처럼 왕래가 잦은 곳은 더 신경 쓰고 있지! 이 광택을 보라고! 다른 스퀘어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네. ㅎㅎ.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시이라라는 음유시인인가, 예언자인가가 왔던데 아크에 대해 물어보는 게 어때? 아래쪽 광장에 있을 거야

시이라를 찾아가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시이라 : 음흠~... 음흠~... 안녕하세요, 제겐 무슨 일이시죠? 아크에 대해 적혀있는 석판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연주하던 노래는 아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탈출의 노래라는 건데요.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죠. 후후, 신기하죠? 사람들은 모두 아크를 믿지 않지만 음유시인들은 전설을 잊지 않고 노래 합니다. 로그힐 석공들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떨가요? 석판에 대해서라면... 석공 아르줄 님이 아크와 관련된 유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모험가님께 아크의 빛이 함께하길.

(9 고대의 유산) 로그힐의 석공 아르줄에게 가보자

아르줄 : 성당에 있는 석판의 빠진 조각이라면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네. 왜 그게 필요한가? 아크? 음유시인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소설 아닌가? 석판은 모르겠고... 그 비슷한 건 있다네. 저기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쓸모없는 돌덩이가 남아 있으니 그거라도 보던가. 별 의미는 없겠지만... 경비대원 아트를 만나보게. 근처에 있었으니 뭐라도 알고 있겠지.

로그힐의 첫 번째 부조 석상인 '사슬전쟁의 부조'를 살펴보면



나레이션 : 오래전 악마의 침략으로 중간계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길고 참혹한 전쟁... 이 전쟁은 훗날 사슬전쟁이라 불리었습니다.

로그힐의 두 번째 부조 석상인 '아크'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레이션 : 이런 참혹한 전쟁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지만 신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간계 종족들은 악마에게 맞서 싸우며 아크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크의 힘만이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그힐의 세 번째 부조 석상인 '에스더와 아크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레이션 : 아크를 찾아낸 것은 중간계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에스더라 불린 일곱 명의 영웅들... 중간계 종족들은 실들의 도움 없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여 악마를 물리치고 오랜 전쟁을 끝냈습니다.

로그힐의 네 번째 부조 석상인 '대악마 카제로스'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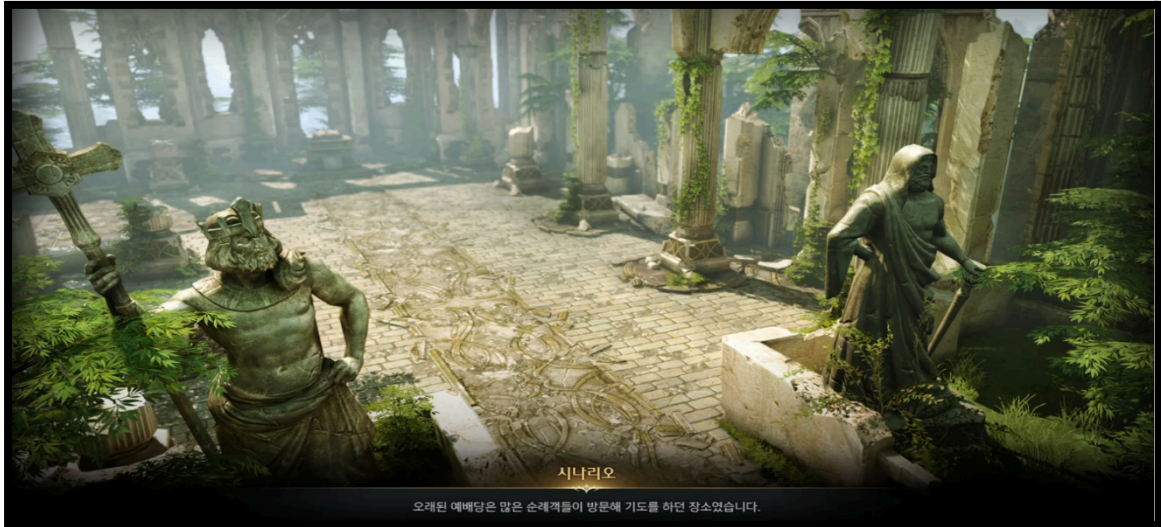


아만 : 여기에 계셨군요. 석조 유산을 둘러보는 중이신가요? 과거, 에스더라 불렀던
영웅들은

아크의 힘으로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간계에 어둠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들에 맞서기 위해서, 저는 아크를 찾아 세상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크가 존
재하지 않는 전설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석판이 바로 그 단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
요. 모험가님도 아크의 전설을 믿으신다니 힘이 나네요. 이제 저는 다른 곳을 조사하
러 가겠습니다. 뭔가 찾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경비대원 아트 : 열쇠의 석판이라면... 오래된 예배당에서 옮겼던 그것 말씀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 예배당에서 옮겼으니 그곳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 오래된 예배당에는) 오래된 예배당에 가보자

독발톱 도굴단 : 조각을 찾아라!

예배당의 불청객 도굴단원을 처치하자

경비대원 리스 : 잔당이 있는지 확인하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트에게 여기 상황을 전해주시오. 저쪽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경비대원 아트 : 독발톱 도굴단 놈들... 단체로 몰려와 경비대를 공격하다니... 모험가님이 찾고 있는 그 석판이 매우 중요한 물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모하게 경비대에 덤비기까지 하는 걸 보니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독발톱 도굴단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경비대원 미겔을 찾아가 보십시오.

(📍 석판 추적) 경비대원 미겔을 찾아가 석판의 행방을 물어보자

경비대원 미겔 : 최근 도굴단의 동향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 레온하트의 창고에 들러 보급품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스퀘어홀을 이용해 레온하트로 빠르게 가보자

델렌 : 인원이 부족하다더니 모험가님께서 직접 가지러 오신 건가요? 도굴단이 극성이긴 한 모양이네요. 안타깝게도 보급품은 이 상자 하나에 담긴 게 전부입니다.

받은 보급품을 들고 로그힐 초소로 돌아가자

경비대원 미겔 : 보급품이 넉넉하진 않군요. 마침 도굴단에 대한 파악이 끝났습니다.

수호대원들이 모은 정보에 의하면 쿠고라는 작자가 예배당 습격을 주도했다고 하더군요. 놈이 근처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 모험가님이 찾는 그 석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두목 쿠고를 처치하여 단서를 얻어보자, 쿠고를 제압하면

도굴단장 우고의 쪽지 : 쿠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석판을 찾아라. 만약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놈에게 죽을 거다! 애들을 모두 풀어서 로그힐을 살살이 뒤져라. 그리고 그 석판을 찾으면 은신처에 숨겨줘라.

경비대원 미겔 : 이 쪽지를 보아하니 석판을 찾고 있는 놈들은 은신처에 모이기로 했군요. 석공 카한이 이 근처를 잘 아나니 도굴단이 숨은 은신처를 알지도 모릅니다. 카한을 찾아가서 경비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도움을 줄 겁니다.

석공 카한을 찾아가자

석공 카한 : 여기는 오웬이 도굴단 놈들을 봤다고 했던 곳이군. 다리를 건너 북쪽의 수풀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가면 돼. 위험할 수 있으니 준비를 든든히 하고 가게.

(♣ 도굴단이 찾는 것) 도굴단의 은신처를 조사하자, 행동대장 차고를 처치하자

독발톱 도굴단원 1 : 그게 대체 뭐길래 이 난리야?

독발톱 도굴단원 2 : 찾지 못하면 우린 두목한테 다 죽어.

독발톱 도굴단원 3 : 엄청 비싼 게 아닐까?

독발톱 도굴단원 2 : 코일즈 계곡에 있는 녀석들이 뭔가 발견했대.

독발톱 도굴단원 4 : 두목이 찾고 있다던 그 물건인가?

행동대장 차고 : 웬 놈이냐! 쥐새끼 같은 놈! 숨어도 소용 없다! 살아 돌아갈 거라 생각하지 마라!

행동대장 차고를 처치하자

도굴단장 우고의 메모 : 자고야. 내 오른팔 마고가 드디어 한 건 해냈다! 코일즈 숲에서 그 석판이 묻혀 있는 유적을 찾았다. 지금 애들을 시켜 석판을 뜯어내고 있는 중이다. 너는 은신처에서 경비병들이 이동하는 걸 감시해라. 이것만 처리하면 그 무시무시한 놈도 우리를 떠날 거다.

경비대원 미겔에게 도굴단 두목의 메모를 보여주자

경비대원 미겔 : 도굴단 두목이 썼군요. ‘코일즈 계곡에서 물건이 있는 곳을 찾았다.’

경비대원 미겔 : 모험가님이 찾는 그 석판을 말하는 걸까요? 코일즈 계곡으로 가보십시오.

슈딜 수도사님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도움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수도사 슈딜을 찾아가면

수도사 슈딜 : 도굴단이 레온하트 성당에 있는 석판의 조각을 찾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 도굴단 놈들을 처치하다 보면 모험가님이 찾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쉼터 관리인 메이독을 만나보십시오. 코일즈 숲에 있는 유적지에서도 도굴단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 도굴 경보!) 유적을 파괴하는 독안개 도굴단원을 처치하자

(♣ 코일즈 숲의 도굴단) 쉼터 관리인 메이독에게 정보를 얻자

쉼터 관리인 메이독 : 코일즈 숲에 있는 유적지에 독발톱 도굴단 놈들이 짝 깔렸더군요. 얼마 전부터 돌을 깨부수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유적을 훼손하고 있겠죠! 모험가님이 찾는 그 석판도 놈들이 깨부술지 모릅니다. 어서 가보세요.



코일즈 숲 안, 최근에 파괴된 흔적을 조사하자

부두목 마고 : 너도 그 물건을 노리고 온 놈이냐? 하하하. 도망칠 생각은 마라! 애들아 처리해라!

부두목 마고를 처치하자

아만 : 모험가님! 괜찮으신가요? 도굴단이 석판 조각을...? 왜 그걸 노리는 거죠?

부두목 마고 : 크으... 네놈들도 그걸 찾고 있었나? 이미 늦었다. 그건 우리 두목 손에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가질 수 없어... 우리에게... 그 악마가... 크크크...

아만 : 악마가 개입한 건가... 역시... 이런 사악한 저주는 인간이 가질 힘이 아니다 싶었는데... 서둘러 도굴단의 두목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겠어요! 코일즈 숲의 관리인을 찾아보죠. 뭔가 정보가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썬터 관리인 메이독에게 마고의 일지를 전해주자

썬터 관리인 메이독 : 독발톱 도굴단 놈들의 소굴이라면 이 길을 따라간 외진 곳에 있을 겁니다. 몹쓸 짓만 하고 다니는 도굴단 놈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세요!

(9 동굴 속의 악마) 메이독이 알려준 독발톱 도굴단의 본거지 '코일즈 계곡의 동굴'을 조사하자
몰려드는 독발톱 도굴단원을 처치하며 석판이 있는 곳으로 향하자



카마인 : 축하한다. 석판을 찾았으니... 목숨은 살려주마.

도굴단 두목 우고 : 예, 올! 석판은 여기에...!

카마인 : 흐음. 여기에 아크와 관련된 비밀이 있단 말이지. 석판의 나머지는 그 성당에 있으니... 이제 무슨 내용인지 맞추러 가 볼까?

카마인이 조각을 가지고 사라진다. 도굴단 두목 우고를 처치하자

도굴단 두목 우고 : 흐흐흐. 네놈들도 석판을 찾으러 온 것 같은데. 포기해라. 크크... 그 악마가 가져갔으니... 크흑...

아만 : 악마가 가져갔다니... 설마...! 레온하트가 위험해요!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 레온하트의 악마들) 악마들로부터 마을을 구해야 한다. 고립된 마을 사람들과 목재에 깔린 사람들을 구출 하자

겁먹은 코룸바 : 아직 바루투님께서 성당에 계세요!

겁먹은 마을 주민 : 악마가 나타났다!

네리아 : 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성당 안의 바루투를 구출하자



다시 묻겠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지?

카마인 : 다시 묻겠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지?

바루투 : 악마에게... 말해줄 것은 없다...!

카마인 : 뭐, 기다리지. 어차피 넌... 말하게 될 거야.

아만 : 바루투님!

카마인 : 음? 뭐지?



카마인 : 고작 이 따위 힘으로 덤벼들다니 가소롭군.



카마인의 힘에 밀리는 아만

아만 : 대체... 이곳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그때 아만의 모습이 변한다





카마인 : ...크익!

결국 쓰러지는 카마인

카마인 : 어떻게 이런 힘을...! 네 녀석, 데런이었나? 예상 밖의 전개로군. 뭐 아쉽지만
오늘은 물러가는 게 좋겠어. 또 보게 될 거야.

카마인이 사라진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만

아만 : 바루투님!

바루투 : 아만... 또 그 힘을 사용했구나...

아만 :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바루투 : 쓰면 쓸수록... 힘에 먹혀 버리고 말게야.

아만 : 명심하겠습니다.



아만 : 사제라기엔 지독한 모습이죠? 전... 데런입니다. 악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바루투 : 악마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알 것 같군... 이 석판에는 루테란 왕이 가진
아크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네. 잠시 이 마을에서 머물게. 상황이 정리되면
석판에서 알아낸 것을 말해주겠네. 자네의 피로와 상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군. 내가 무슨 짓을... 아아, 신이시여...

아만 :

실은 나도 데런이다

아만 : 페이지트의 암살자... 그럴습니까... 제가 실례를 했군요. 죄송... 합니다... 모험가님이
낮설지 않았던 건... 그래서 었을까요? 저를 위해無理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제 상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모험가님도 꼭 쉬시기를...

네리아의 여관에서 머무르는 주인공. 잠에서 깨어나자 네리아가 말을 건넨다

네리아 :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성당으로 가보세요, 모험가님.
바루트 사제님이 찾고 계세요.

(9 예언자의 석판) 신관 바루투를 만나자



바루투 : 루테란 왕의 아크를 찾기 위해서는 검과 독수리... 두가지 인장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네. 그 중 검은 인장이 소금사막 유디아의 가라앉은 왕국, 모라이에 있다고

하는군. 하지만 유디아로 가기 위해서는 안게모스라는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할 게야. 자네들이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신 루페온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네.

아만 : 감사합니다. 바루투 님.

바루투 : 자네들의 도움 덕분에 레온하트가 무사할 수 있었네. 이 고마움을 어찌 다 표현해야 할지... 부디 아만 사제와 함께 석판에 담긴 비밀을 풀고 아크에 달기를 기도하겠네.

(9 단서를 찾아서)

아만 : 유디아까지 가야 한다면 국경을 넘어 긴 여정이 되겠군요. 여행자의 쉼터에 있는 에드마라는 상인에게 이야기해 두었으니 유디아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겁니다. 저는 안게모스 산 기슭에 있는 가로아 사제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일이 마무리되면 안게모스 산 기슭에서 만나요.

여행자의 쉼터에 있는 에드마에게 찾아가자

에드마 : 아만 사제 님이 말한 모험가가 당신이군. 국경을 넘을 생각인가? 험준한 안게모스 산을 넘어가면 탁 트인 소금 평야가 펼쳐진다네. 그 곳이 유디아야. 국경 근처에는 거대하고 위험천만한 몬스터들이 많이 출몰하니까 꼭 주위를 살피고 경비대의 도움을 받도록 해. ㅎㅎ, 당신도 쉽게 당할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말이야.

안게모스 산 기슭



(📍 음풍이 부는 기슭) 안게모스 산 기슭에서 아만을 찾아보자

안게모스 전령 : 조심하십시오. 이곳을 무사히 지나시려면 가로아 사제님을 만나보십시오.
여긴 지독한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제님의 도움 없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옛 성당 잔해에서 사제 가로아를 찾으면

가로아 : 레온하트에서 오셨지요? 아만 사제님이 말한 분이 당신이지군요. 이곳은 축복의 제단을 통해 보호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단의 힘이 사라졌답니다. 역병과 함께 나타난 악마들 때문이겠지요. 이 보석을 통해 제단이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만 사제님은 신성한 샘으로 가셨으니 일이 마무리되면 찾아가 보세요.

(9 신성한 샘) 축복의 제단 중앙에 보석을 설치한 뒤 아만을 찾아가자

아만 :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일대의 샘이 오염되었어요. 이대로 놔둔다면 역병이 더 심해질 테니 모두 정화해야 합니다. 산짐승의 사체를 불태워 주세요. 그리고 신성한 샘물을 오염된 샘에 뿌려주세요.

신성한 샘 주변을 정화하면

아만 : 역병을 옮기는 원인을 제거 했으니 이곳은 이제 괜찮아 질 겁니다. 감시 초소는 무사할지 걱정이 되는군요.

국경 감시 초소로 이동하자

국경수비대원 파커 : 악몽이 따로 없군.

국경수비대원 벅 : 아만님 덕분에 좀 나아졌습니다.

아만 : 생각보다 심하게 역병이 퍼져 있어요. 시체를 태우는 연기로 하늘이 검게 물들었군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초소를 지킬 병력이 부족합니다. 모험가님. 이곳의 병사 분들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9 역병의 원인을 찾아서)

아만 : 초소를 공격하는 감염체들을 막아주세요. 저는 병사들을 치료하겠습니다. 역병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국경 감시 초소 주변의 감염체들을 처치하면

아만 : 이제 초소에 있는 병사들이 한숨 돌리겠군요. 다행입니다. 볼트들이 폐쇄된 국경 초소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병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폐쇄된 국경 초소로 가서 그곳의 국경 경비대원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폐쇄된 국경 초소로 이동하자

국경수비대원 반트 : 역병에 걸린 생물들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사령기지를 지원해야겠는데 놈들의 공격이 심해 기지로는 접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령기지의 상황을 살피러 가시면서 놈들의 수를 줄여 주십시오!

(♣ 고립된 사령기지) 초소의 국경수비대원들은 역병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마침 아만이 도착해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지만 역병에 걸린 생물들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인근의 사령기지로 향하며 역병에 걸린 생물들을 처치하니 어느새 사령기지 앞에 도착해 있었다. 고립된 사령기지를 지원하자.

(♣ 악의의 파도) 사령기지는 역병에 걸린 볼트와 악마들의 공격으로 혼란에 빠진 상태다. 곧 볼트의 공격이 다시 시작될 것 같으니 온 힘을 다해 막아내자.

국경수비대 대장 해밀모르 : 좋지 않은 시기의 방문객이군. 이곳은 지금 볼트의 공격을 받고 있네. 많은 병사들이 놈들 공격에 쓰러졌지. 살아남은 병사는 검을 들 힘조차 없네. 무리한 부탁이지만 이곳이 악마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릴 도와주게.

국경수비대 대장 해밀모르 : 역병을 퍼트리는 악마가 주변의 몬스터들을 조종하고 있다. 놈들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싸워라...!



감염체 무리와 지휘관 자쿠마를 처치하면

국경수비대 대장 해밀모르 : 놈들의 대장을 처치했으니, 부상자들을 옮기고 부서진 곳을 수리해라. 시체를 태워 역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경수비대 대장 해밀모르 :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았군. 악마들이 볼트들을 이끌고 공격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국경 감시 초소로 가서 파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를 도와주지 않겠나?

(♣ 뒤늦은 지원군) 곤경에 빠진 사령기지를 구했다. 그간 있었던 볼트들의 공격은 악마들이 유도한 것이 아닐까? 악마들이 정말 일을 꾸미고 있고 주변의 생물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초소의 파커에게 알려주자.

국경수비대원 파커 : 우리 대장님을 만나셨단 말입니까? 이런! 악마들이 볼트 놈들을 조종하고 있었다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만 사제님과 모험가님이 아니었다면 사령기지가 큰일 날 뻔했군요. 대체 이 역병과 악마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병사들은 국경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역병의 기운을 못이기고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만 : 그렇군요. 악마들이 볼트를 이끌고 역병을 퍼뜨리고 다니다니... 놈들의 속셈이 무엇일까요... 어딘가에 분명 역병의 근원이 존재할 것 같은 한데... 우리는 서둘러 이 역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때까지 국경수비대가 버텨줘야 할 텐데... 모험가님께서 수비대원들이 버틸 수 있을지 알아봐주시겠어요? 저는 환자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희생은 반드시 기억된다) 국경수비대는 악마들에 맞서 이 땅을 수호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 국경수비대원 파커가 전해준 순례자의 기록을 조사하고 아만과 함께 아크의 흔적을 추적해야 한다.

국경수비대원 파커 : 대원들은... 아르테미스를 수호하기 위해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원들은 안게모스 산기슭 곳곳을 수색하며 역병의 근원을 알아내려 분투 중입니다. 이 산맥에서 가장 위험한 아길로스의 머리로도 수색대원들이 나가있죠. 목숨을 걸고 이 곳을 사수할 테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아, 그리고 가로아 사제님께서 이 기록을 아만 님께 전해달라며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아만 사제님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만에게 떠돌이 순례자의 기록을 보여주면

아만 : 이걸 오래 전에 저처럼 아크를 찾아 다니던 순례자가 남긴 기록이에요. 국경지대에 있는 수도원에 아크를 찾던 순례자들이 정착했다고 하네요. 상황은 급박하지만 이들의 고통과 신음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악마들로 인해 다친 이곳 병사들을 돌본 후

아만 : 모험가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저에겐 악마의 피가 흐르지만... 빛의 사제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 싶습니다.

아만은 마음을 다잡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만 : 어서, 출발하세요. 저도 서둘러 따라가겠습니다.



병사들을 치유하는 아만. 국경지대로 이동하자



(♣ 상단을 습격한 것은?) 파커는 아길로스의 머리에서 대원들이 희생된 것을 비통해 했다. 조금만 더 빨리 지원이 있었다면 구했을지도 모를 이들이었다. 잠시 침묵하던 파커는 가로아 사제가 부탁한 물건을 꺼내 전해주었다. 아만은 순계자의 기록을 통해 수도원에 아크에 관한 기록이 있을 거라며 수도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상인 제다와 대화해보자

제다 : 아, 어찌쵸? 전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함께 있던 베니스님이 보이지 않아요! 위쪽으로 가면 우리 상단이 있을 텐데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상인 베니스를 찾아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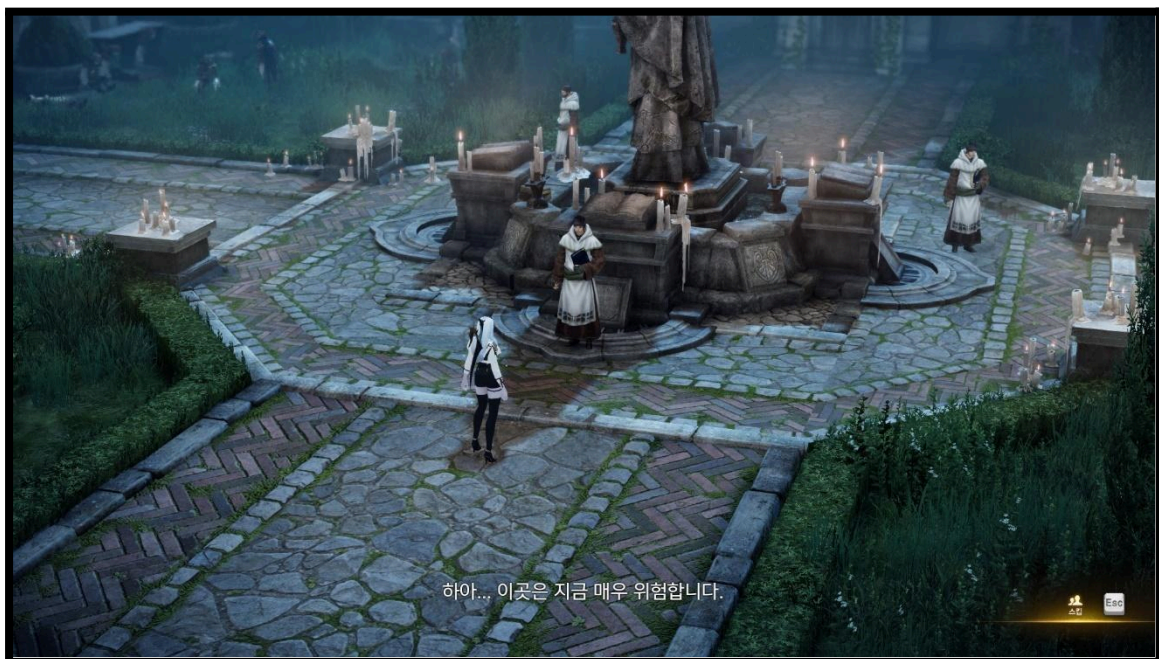
상인 베니스 : 저 짐이 어떤 짐인데. 저게 다 타네. 아이고! 누가 저 불 좀 꺼주시오!



상단의 마차와 주변 정리를 도와주면

상인 베니스 : 고맙소. 불에 타지 않은 물건이 있으려나... 수도원으로 간단 말시오?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지만 안 가는 게 좋을 거요.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도원에 짝 깔렸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사람들을 치유해야 할 수도사들도 역병에 걸려 쓰러졌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지.

수도원에서 수도사 알레드를 찾자



수도사 알레드 : 하아... 이곳은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역병이 돌아, 어떤 약을 써도 통하지 않아요. 도우려던 사람들까지 병에 걸려 버렸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일대는 지금,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9 새로운 질병) 송장벌레와 노상강도의 공격으로 곤경에 빠진 상단을 도와주었다. 상단장 베니스는 수도원으로 간다는 소리에 걱정하며 만류했다. 역병이 이미 사방으로 퍼져 수도원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 된 모양이었다. 아만을 수도원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위험하더라도 발길을 멈출 수는 없었다.

수도사 알레드 : 일전에 악마들이 수도원 농지에 나타났을 때 이상한 구체를 설치했었습니다. 이후 역병이 크게 번져 농지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되었죠. 그 구체가 역병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구체를 파괴해 주십시오!

수도원 농지에 설치된 질병 구체를 파괴하고 돌아오면

수도사 알레드 : 감사합니다. 마침 아만님께서 오셔서 치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기서 수도사들을 봐주고 계시니 만나보십시오.

아만 : 이건 본 적 없는 질병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수도사분들은 뱀에게 물린 것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이 매우 빠른데다, 선불리 건드리기엔 위험할 것 같아서 걱정이군요. 이곳 어딘가에는 신비한 보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이용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한가지 방법) 수도원에 도착한 아만은 수도사들의 병을 돌보며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수도원에 있다는 신비한 보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알레드에게 물어보자

수도사 알레드 : 보옥이라... 글썄요. 그건 딜론 수도사가 잘 알 겁니다. 다만 국경 초소를 지원하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만나시려면 초소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국경 초소 지원을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수도사 딜론을 찾아 보옥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자

수도사 딜론 : 이곳은 역병보다 당장 죽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급합니다. 초소 밖의 거대 시체거미를 제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국경 초소 주변의 거대 시체거미를 처치하면

수도사 딜론 : 거미가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말씀하신 보옥이라면 뱀의 보옥일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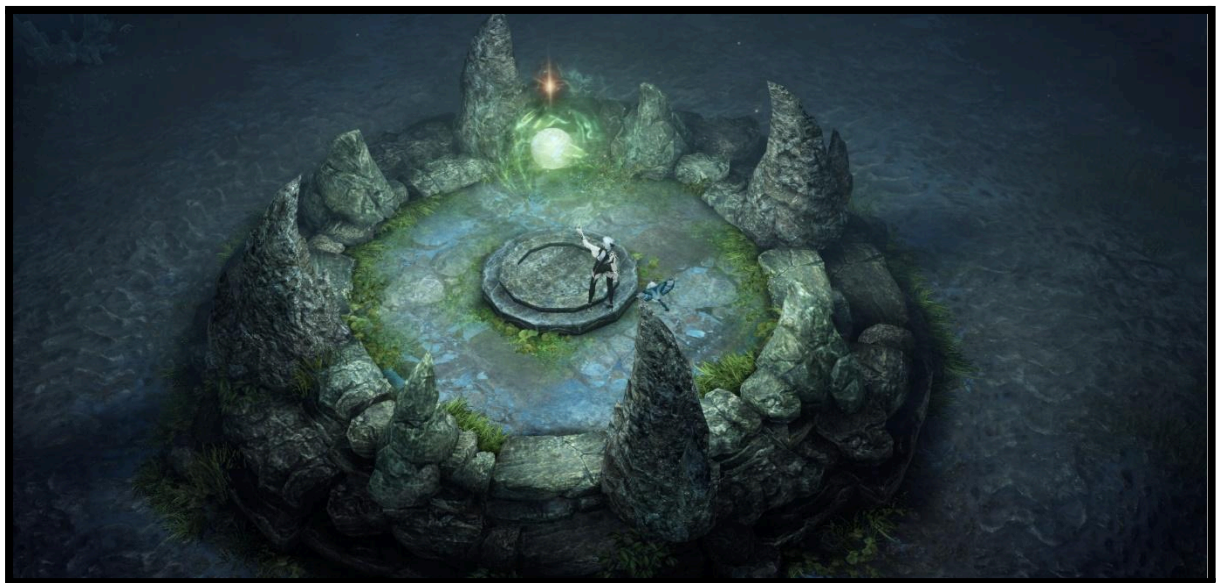
해독에 뛰어난 힘이 있죠. 여기서 멀지 않은 아길로스의 꼬리라는 동굴에 있긴 한데... 하지만 지금 그곳엔 악마들이 날뛰고 있어 몹시 위험합니다.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 뱀이 품고 있는 보석) 국경 초소를 위협하는 거미들을 처리했다. 딜론은 한결 안심한 표정으로 뱀의 보옥이 아길로스의 꼬리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길로스의 꼬리 역시 악마들이 장악하여 몹시 위험하다고 했다. 아길로스의 꼬리로 가면

(♣ 뱀의 꼬리에서) 아길로스의 꼬리는 음침하고 습한 곳이었다. 이런 곳에 역병을 고칠 수 있는 보옥이 있는 게 사실일까? 동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질병 군단의 하르잘을 처치하고 제단 위의 뱀의 보옥을 갈무리 하자



(9 변방에서) 악마들로 가득 찬 아길로스의 꼬리 끝에서 뱀의 보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옥에서 흘러나오는 신비한 기운에 역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서 이 보옥을 아만에게 전해주자.

아만 : 이 뱀의 보옥을 사용하면 역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보옥 안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네요.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물러나주세요.



수도원장 레위스 : 으... 으음...

아만 : 정신이 드십니까?

수도원장 레위스 : 자네가 날 구했군. 고맙네.

아만 : 저와 제 동료는 아크를 찾기 위해 유디아로 가는 길입니다. 바루투 님께서 모라이 유적지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곳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수도원장 레위스 : 모라이... 그래. 들어본 적이 있네. 전설에 따르면 옛 카바티안 왕국의 수도로 어느 날 사라졌다고 하지. 소금 사막의 유랑민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들은 카바티안의 후손들이니 말이네. 가기 전에 알레드 형제를 찾아 ‘순례자의 서’를 가져가게. 분명 도움이 될 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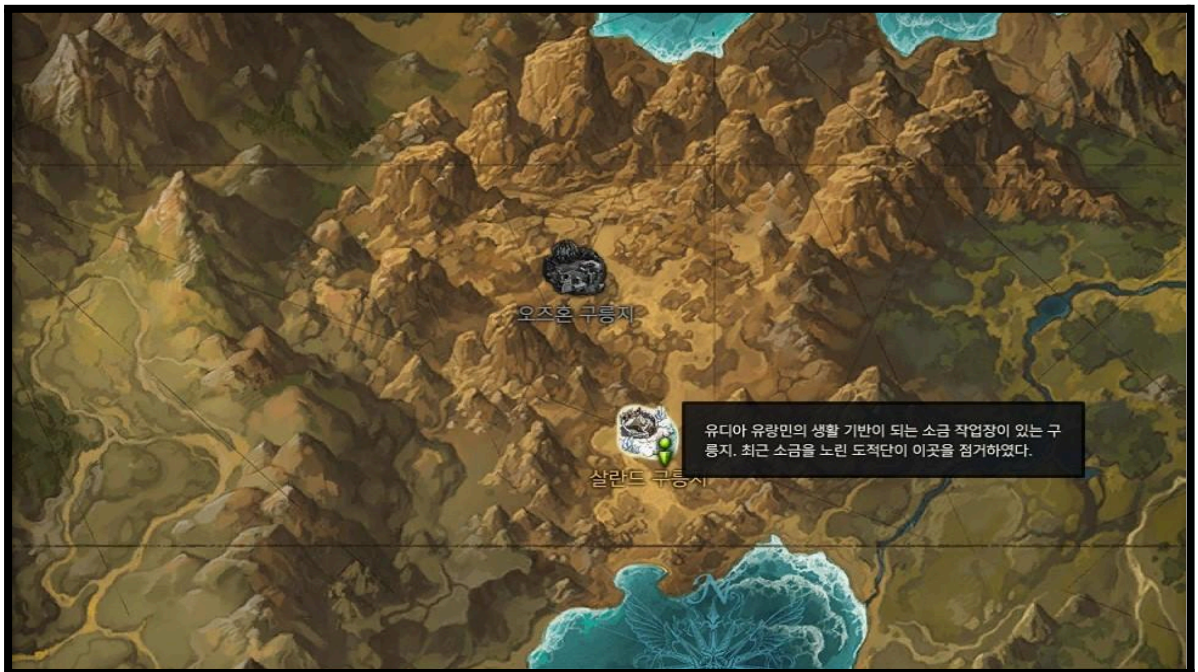
아만 : 먼저 유디아로 가서 모라이 유적지로 가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겠어요? 저는 남은 역병을 정화하고 뒤따라가겠습니다.

수도사 알레드를 찾아가면

수도사 알레드 : 레위스 원장님이 정신을 차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디아에 대한 기록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상단에 말해뒀으니 초소에서 유디아까지는 마차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유디아



(📍 유랑민을 찾아서) 모라이 유적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유디아 사막에 도착했지만, 유랑민들은 도적단을 피해 임시 야영지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다. 유랑민들에게 모라이 유적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아만과 함께 임시 야영지로 향했다.

아만 : 더 이상은 마차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길도 험하고 도적들이 습격을 해와서 위험하다는군요. 유랑민과 거래하던 도스만 씨께 들어보니, 도적단 때문에 유랑민들도 야영지를 잃고 임시 야영지로 옮겨갔다는 모양입니다. 모라이 유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우선 유랑민들과 만나봐야 할 텐데... 우선 그곳을 찾아봐야겠어요.



임시 야영지로 향하면

카마인 : 자... 어서 입구를 찾아. 나를 위해서 말이야... 가라! 스토라스. 가서 녀석들의 뒤를 쫓아라!

(♣ 불탄 야영지) 유랑민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유랑민 장로인 토랄론의 말에 따르면, 많은 유랑민들이 도적단에 쫓겨 임시 야영지에 합류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다고 한다. 모라이 유적에 대한 단서를 찾기 앞서, 아만과 함께 곤경에 처한 유랑민을 돕기로 했다.

아만 : 도적단 때문에 흩어진 분들이 아직도 임시 야영지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라이 유적에 대해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군요. 곤란에 빠진 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다친 유랑민 분들을 치료하고 있겠습니다.

유랑민 장로 토랄론과 대화하면

유랑민 장로 토랄론 : 자네는 누군가? 뭐라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외지인이 무슨 속셈이지? 자네가 도와 줄 건 없네! 저기 있는 저 사제의 일행이라고? 뭐, 그에게는 도움을 받고 있네만... 자네도 우릴 도와주겠다는 건가? ...대뜸 욕박질러서 미안하네. 도적단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불안한 상황에 그만... 다들 무사해야 할 텐데... 부탁하네. 사람들을 찾는 걸 도와주지 않겠나? 오, 고맙네! 그렇다면 우선 바오킨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도적단 놈들이 공격해 왔을 때, 상단 사람들과 함께 탈출했다니 뭔가 알고 있을 걸세!

임시 야영지 북쪽 바오킨과 대화하면

바오킨 : 깜짝이야. 도적 놈들인 줄 알았네... 함께 탈출한 사람들은 다들 남쪽으로 향했네. 나도 원래는 남쪽으로 가려 했는데 도적단 때문에 꼼짝도 못 하게 됐어. 거스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당신은 남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가는 길에 도적단 좀 몰아내 주지 않겠나? 아! 그리고 길이 뚫리면 거스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좀 전해주게!

불탄 야영지를 찾아가 흰모래 도적단을 섬멸하자

거스 : 바오킨이 북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이 친구가 미쳤나, 도적 놈들이 짝 깔렸는데?! 뭐, 자네가 오다가 처치했다고? 가만, 가만 있어 봐. 오, 정말 수가 줄었군. 고마워! 여기 일이 좀 정리되면 갈게. 응? 다른 유랑민들은 어디에 있냐고? 다들 소금 작업장에 모여있을 거야. 거기에도 도적들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지만... 혹시 그곳으로 갈 생각이야? 그럼 아까처럼 도적 놈들 좀 쓸어버려 줘! 그 천벌 받을 놈들 때문에 우린 다 잃었어!

(9 도적단이 장악한 길) 거스는 도적단이 유디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다. 탈출한 유랑민들은 대부분 소금 작업장에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길목을 장악하고 있는 흰모래 도적단을 처치하며 소금 작업장으로 향했다. 처치 후 유랑민 지도자 발디와 대화하자

발디 : 자네가 도적들을 몰아냈다고 들었네. 고마운 일이군. 생면부지의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 돕겠네.

(9 소금 작업장) 모라이는 유랑민 지도자인 발디조차 믿지 않는 전설 속의 장소였다. 발디는 옛 이야기가 적힌 비석을 떠올려, 흰모래 도적단이 점령하고 있는 염전으로 가보라고 말했다. 점령당한

염전에서 도적단을 살피고 있는 포베트에게 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아만 : 오셨군요! 전 먼저 와서 좀 둘러보고 있었습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이곳 유랑민 분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모험가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요. 모험가님께서 유랑민 분들에게 모라이 유적에 대해 물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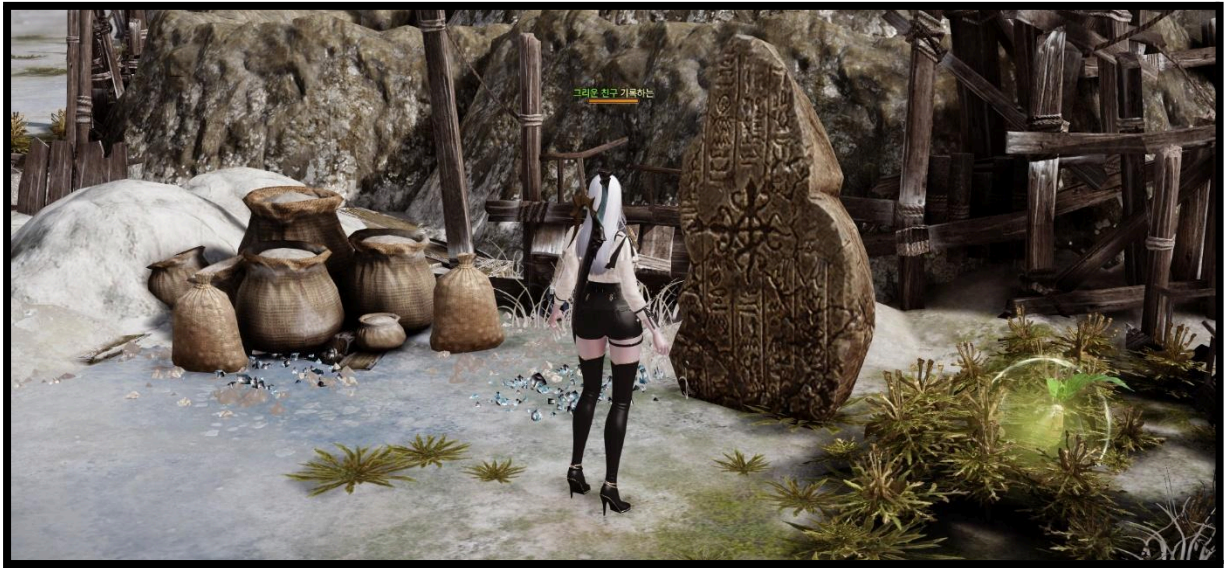
발디 : 모라이 유적에 대해 알려달라고? 그건 전설 아닌가? 천둥 할머니 좋아할 법한 이야기로군. 옛 이야기라... 이곳 사막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적힌 비석들이 세워져 있다네. 거기에 뭔가 적혀있을지도 모르겠군. 내 기억이 맞다면 도적단 놈들이 점령하고 있는 염전에 비석이 하나 있었네. 지금 염전을 살피기 위해 포베트 영감이 나가 있으니 찾아가 물어보게.

아만 : 오래된 비석이라... 카바티안 왕국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카바티안은 과거, 유디아에 있었던 번성한 왕국이죠. 카바티안 왕국의 수도였던 모라이는, 하루아침에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 비석에, 모라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을까요? 모험가님, 한 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저도 이곳 분들을 돕는 틈틈이 다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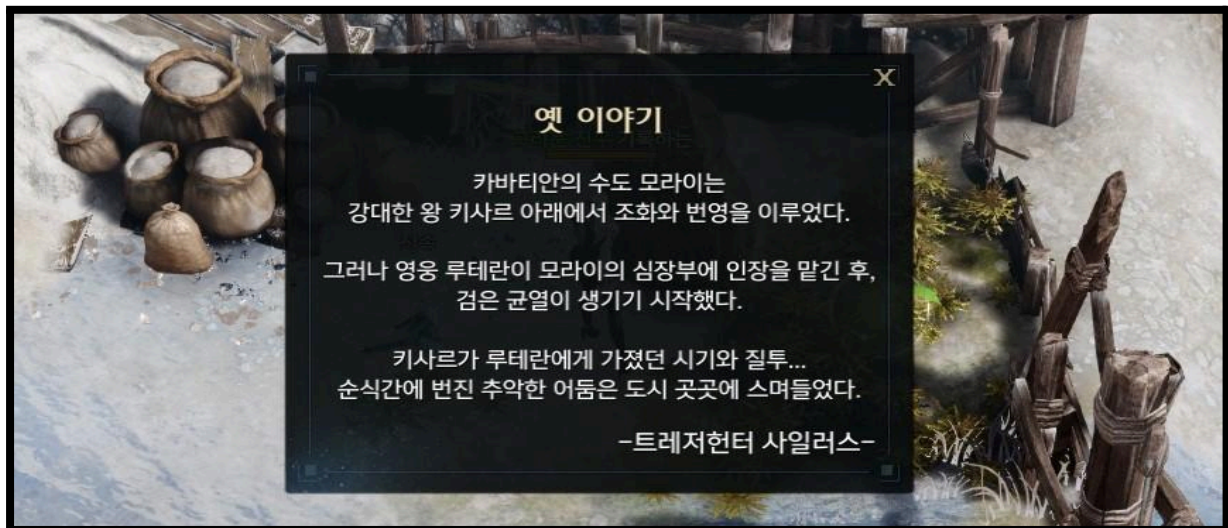
(♣ 비석을 찾아서) 유랑민 포베트는 염전 어딘가에 보았던 비석을 떠올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다. 직접 나서서 점령당한 염전에서 비석을 찾아 내용을 확인 해보니, 고대 카바티안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아크로 가는 길을 열어 줄 인장이 그 곳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모라이로 향하는 길을 알 수가 없었다.

포베트 : 외지인... 혹시, 도적단을 몰아낸 분이신가! 고맙군, 고마워. 근데 여기엔 무슨 일로 오셨나? 비석... 비석이라... 염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네. 문제는 염전을 장악하고 있는 도적들이네. 그들을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게야. 카바티안의 기록... 이제는 유디아의 사람들 모두 관심이 없네만, 선조를 찾아주는 이들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로군. 조심하게나.

비석을 찾아 내용을 확인하면



비석의 내용은



(📍 도적단 소탕) 당신이 비석을 찾는 사이, 발디는 흰모래 도적단의 소굴을 염탐하고 있던 자르카로부터 금보를 받았다. 잡혀간 유랑민 처녀들이 내일 노예상에게 넘겨진다는 것이다. 발디는 여전히 뭉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유랑민들의 현재 상황을 답답해하며, 당신에게 흰모래 도적단 소굴에서 마을 처녀들을 구출해줄 것을 부탁했다.